Entertainment p/14

가슴 아픈 연애담 노래에…

메트로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Sports p/21

박지성 "AC밀란 자신있다"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

NEWS p/02

금융권 임원급여 30% 깎는다

ECONOMY p/06

엑소-동방신기+슈퍼주니어

ENTERTAINMENT p/15

OD Musical Company, CJ E&M & Broadway Overseas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A Musical Drama by DALE WASSERMAN

Music by MITCH LEIGH   Lyrics by JOE DARION

8월 28일 오후 2시
1차 티켓오픈!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최고의 작품!

출연 정성화 조승우 김선영 이영미 정상훈 이훈진 서영주 외

주최 동두아트홀 제작 OD MUSICAL COMPANY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예매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yes24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까까머리 송중기 현역 입대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손흥민 '홍명보호' 첫 승선

들썩이는 '식탁물가' 마트 갈 때마다 떨리는 손 추석을 앞두고 식탁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2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나물류 판매대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조기(54.7%)와 계란(32.8%), 도라지(35.2%), 고사리(22.5%), 무(11.2%), 깨(11.3%) 등 제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서민 쓰린 속 달래주는 스크린

주거문제·공권력 남용 등 사회적 의제 다룬 영화에 수백만 관객 몰려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이 스크린에서 폭발하고 있다.

설국열차(884만·위 사진)를 시작으로 '더 테러 라이브'(542만), '숨바꼭질'(420만·아래), '감기'(274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그리고 무기력한 공권력을 비판하는 네 편의 한국영화가 연이어 히트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8월 한국영화 관객이 20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기에 의미심장하다.

이 중 '숨바꼭질'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포나 다름없는 주거 문제를 스릴러로 풀어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생존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두 모녀가 중산층 가정의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다는 줄거리로 현실감과 설득력을 더한다.

열차안 피지배 계층의 반란을 다룬 '설국열차'와 대통령 등 권력층에 맞서는 테러범의 범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더 테러 라이브',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민들의 무차별 학살을 계획하는 정치인과 관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감기' 역시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의외도 이같은 유형에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영화의 강세 속에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은 악덕 금융 자본가들이 자행한 사회에서 마술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21세기판 로빈 후드들이 그 주인공이다.

◆ 억눌린 심리상태 영화로 해소

이처럼 유사한 흥행 코드를 지닌 영화들에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소외감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대중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흥행을 부추기고 있다. 얼마전 영화 대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며 사실상의 증세를 합리화해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정치에 직접 참여해 분노하지 않더라도 짜증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억압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체념하는 게 현실"이라며 "영화를 통해 억압된 심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극장 나들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거 다큐멘터리나 고발 형식의 정치 영화에서만 다뤄지던 소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트렌드를 거들고 있다.

이 교수는 "특정 이념을 가진 감독의 저예산 영화에 머물던 폴리티컬 시네마가 소셜 시네마로 확장됐다"며 "사회적 의제의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형수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수능 문·이과 폐지 검토

현 중3 시험 보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필수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분리·독립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27일 발표했다.

2016학년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 틀에서 일부 손질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해 검토할 수능개편안 3가지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은 현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문·이과 구분을 일부 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 2가지도 제시했다.

특히 문·이과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과목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방안이 최종 선택되면 모든 수능 응시자는 국·영·수·사·과·한국사 6과목을 똑같은 문제로 푼다.

2014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 A·B형은 현재 고교 1·2학년이 응시하는 2016년까지 국어와 수학에만 적용한다. 영어는 올해를 끝으로 2015학년도부터는 단일화해 운영한다.

대입에서 수능과 함께 핵심 전형요소인 학생부는 현행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제)를 유지한다.

수능 날짜도 바뀐다. 현재 11월 첫주인 수능 날짜는 내년부터 11월 둘째 주로 늦추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주로 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는 10월 최종 확정된다.

/김유리기자

혼외 출생 지난해 1만명 돌파

신생아 100명 중 2.1명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보다 1.9%(185명) 늘어난 1만144명이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낸 1981년(974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혼외 출생아는 저출산의 여파로 1997년 4196명까지 급락했으나 2003년(6082명), 2007년(7774명), 2011년(9959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과거 혼외 출산을 굉장히 나쁘게 보던 인식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혼외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모·미혼부 지원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휘례기자

혼인외 출생아 추이 (단위: 명)

신생아 100명 중 2.1명

'02 '04 '06 '08 '10 '12

자료/통계청 연합뉴스

성남시 10개 전통시장 "일본산 수산물 판매 중단" 경기도 성남시 10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이 27일 시청에서 일본산 수산물 판매 중단을 선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유출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홍익대 '페이스포럼' 1위에

김관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팀이 국제 페이스포럼 종합 협업 엔지니어링 이노베이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트센터 대학에서 열린 이 포럼 디자인 부문에서도 3위에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7개 대학 학생 200여명이 출전했다.

우편요금 세분화 효과 톡톡

서울지방우정청은 우편요금 체계를 세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평균 10.4% 경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체국 EMS 우편요금은 2kg 이하 소포장 단위를 기존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했다. 또 코트라 회원사는 13%,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1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 챙기세요"…밟으면 소리나는 계단 인천교통공사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인천 부평역에 설치한 피아노 건강계단을 시민들이 27일 신기한 듯 밟고 있다. 피아노 건강계단은 이용객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센서가 작동해 피아노 음을 낸다. /연합뉴스

택시 기본료 2900~3100원

서울시, 시계외·심야할증과 연계해 500~700원 올리기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700원 오른 2900~3100원선이 될 전망이다.

기본요금 인상 폭에 따라 시계외 할증요금제와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원가를 분석, 4년여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최종 결정하고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인상률 10.5%)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에 등록된 택시가 경기도 경계를 넘어갈 경우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다른 안은 기본요금 상승폭을 낮춰 2900원(9.3%)으로 하는 대신 시계외 할증요금과 심야요금 시간을 현행(밤 12시~오전4시)보다 1시간 앞당겨 시행하는 안(밤 11시~오전 3시)을 모두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대안은 기본요금이 3100원(11.8%)으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대신 시계외 할증요금과 심야요금 시간대를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의 비용 절감 부분을 원가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요금 인상안"이라며 "승차거부 운전자에게 준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706@metroseoul.co.kr

'대체휴일' 내년 추석 첫 적용 5일 쉰다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 도입돼 내년 추석 처음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정부 공공기관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명절이나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한 제도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10년간 공휴일 11일이 증가한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첫 명절은 내년 추석(9월 8일) 연휴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 연휴가 일요일 대신 수요일로 하루 늘어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을 포함하면 휴일은 총 5일이 된다. /유주리기자

가장 말썽 많은 크라이슬러

수입차 소비자 피해 1위

크라이슬러가 국내 수입 자동차 중 판매량 대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브랜드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14개 수입 자동차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총 609건으로 집계됐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98건, 2011년 161건, 2012년 187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판매량 1만대 대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브랜드는 크라이슬러 코리아로 14.7건이 접수됐다. 이어 아우디 코리아(13.7건), GM 코리아(13.5건), 폭스바겐 코리아(11.7건),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11.4건)가 상위 5위에 올랐다.

국내 수입 자동차의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미흡(65.7%)이 가장 많았고 사후서비스 미흡(5.2%), 계약 불이행(5.4%), 계약 해제 거절(4.6%) 등이 거론됐다.

품질 미흡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부문은 엔진 고장(34.5%)이었다. 이어 소음 발생(13.3%), 도장 불량·변색(10.0%), 변속기 고장(6.8%) 순이었다. /장은희기자 unique@

공기질 좋은 시설 22곳 인증

환경부는 26일 실내 공기질이 우수한 어린이집·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22곳을 선정,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는 실내 공기질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우수한 시설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은 전국 어린이집 14곳, 백화점 4곳, 대형마트 4곳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시설에는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를 수여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교육 의무 면제,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송윤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훈

킹 목사 '워싱턴 대행진'

1963년 8월 28일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리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 25만여 명이 워싱턴에서 평화행진을 하여 링컨기념관 앞에 모였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독보적 지지를 이끌어낸 킹 목사의 흑인차별 철폐 운동은 이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역사적 연설로 절정을 이루었고 킹 목사를 만난 케네디 대통령은 고용차별철폐의 제지를 약속했다. 실제로 1년 뒤인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됐다.

3분 스피치 대신 자유발언

박 대통령, 오늘 10대 그룹 총수와 靑 오찬…경제해법 청취

말춤 추는 북한대표들 유스치다산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북한 대표들이 27일 광주 호남대학교 체육센터에서 케나다 NGO단체 '라이트 투 플레이' 지도에 따라 율동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삼성·현대기아차·SK·LG·롯데·현대중공업·GS·한진·한화·두산 등 국내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국내 상위 재벌총수들만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10대 재벌 총수 오찬 회담은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이나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재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상황인식 때문으로, 재계의 현안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미리 '3분 스피치'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가 기업 군기잡기 식으로 딱딱하게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시간과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발언해달라고 통보했다. 재계는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상법 개정안 논란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10대 그룹 총수와 첫 오찬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주영기자 m(...)@metroseoul.co.kr

한동안 잠잠 하시모토 "기자들도 후원금 내라"

정치자금 모금행사 취재 대가 입장료 17만원 요구

하시모토 도루(사진) 일본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취재할 기자들에게 후원금 성격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해 논란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후원회가 오사카 시내 한 호텔에서 오는 30일 개최하는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비공개 행사가 좋다는 이유에서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2008년 2월 당시 오사카부 지사로 취임한 이후 매년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개최해왔지만 비공개로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비공개 행사에 독특한 입장료가 등장한 것이 문제다. 하시모토 시장이 한 장 당 1만6000엔(약 17만원)인 입장권을 구입한 취재진에게 영상 촬영만 제외하고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통해 해당 정치인은 입장료 수입에서 경비를 뺀 차익을 챙긴다. 하시모토의 말대로라면 행사 취재기자는 그에게 후원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정치 자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伊 첫 흑인장관 또 수모…이번엔 "매춘부"

이탈리아의 첫 흑인 장관인 세실 키엥게(48·여) 이민부 장관이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부터 매춘부와 비교당하며 또다시 모욕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역 디아노 마리나시 부시장인 크리스티아노 자 가리볼디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키엥게가 흑인 매춘부들이 많은 지역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가리볼디는 매춘부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특정 지명을 언급하며 "나는 밤늦게 그 지역을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 키엥게를 만나긴 어렵겠다"고 비꼬았다.

이번 발언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가리볼디는 25일 "발언이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높은 세금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페이스북에서 키엥게를 '더러운 검은 원숭이'라고 불러 비난을 받았다.

키엥게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첫 흑인 장관으로 임명된 뒤 끊임 없이 우익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미기자

하늘 뒤덮은 먼지폭풍 거대한 먼지폭풍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휩쓸며 지나가고 있다. /AP 뉴시스

美, 시리아 공습 '초읽기'

"화학무기 사용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르면 29~30일 단행

시리아 사태에 신중론을 보이던 미국이 "책임을 묻겠다"며 최근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 서방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이르면 29~30일 시리아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중의 반응도 부정적이진 않다. 미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캐롤 도허티 부국장은 "시리아 화학무기 학살의 증거가 나온다는 가정 아래서는 군사개입 지지율이 평소의 2배인 45%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공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3개국은 2011년 NATO의 리비아 공습을 함께 주도했다.

◆ 러시아는 "증거없다" 반대

반면 러시아는 군사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년 전 이라크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시리아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 반대, 서방이 군사 개입에 필요한 유엔의 동의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러 안보 현안에서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해온 중국은 아직 군사개입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시리아 현 정권을 축출하는 등 고강도 군사 작전을 펼 가능성은 적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시리아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다. 시리아 공습은 정부군의 화학무기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조선미기자

UVB
자외선이 99%이상 차단되는
원데이 아큐브 트루아이®로 눈을 건강하게!
트리플 케어
UV
UVA 90%, UVB 99% 이상 차단!
1-DAY ACUVUE®
TruEye
WITH HYDRACLEAR®1
ACUVUE®
BRAND CONTACT LENSES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1885.84 (-2.02)	524.39 (-9.34)

금리	환율
2.64 (변동 없음)	1119.50 (+4.00)

뉴스 & 뉴스

중산층 절반 "난 저소득층"

●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OECD기준 중산층임에도 본인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4.9%에 달했다. 특히 남성 가구주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층에서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기준 중산층의 월 가처분소득(4인 가족 기준)은 약 354만원, 자산규모는 약 2억5000만원이다. /김현정기자

청년고용률 수도권이 높아

● 수도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비수도권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의 인구, 고용, 산업구조 현황 등 주요 특징을 분석해 27일 발간한 '우리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자료집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서울이 43.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북이 32.6%로 가장 낮았다.

주당 근로시간은 울산이 44.2시간으로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44시간), 경남(43.7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월급은 금융회사와 대다수 기업체 본사가 위치한 서울(300만7000원)이 가장 많았다. /이국명기자

기업 경기전망 5개월째 '우울'

● 기업 경기전망이 5개월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가 94.4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BSI 전망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은 그 반대다. 전경련은 이번 결과가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장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 환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고국장 직대 김 상 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 자 센 터 02)721-9855

'한가위 제수물가' 육류·사과 빼곤 다 올라

채소와 생선 가격이 크게 올라 올 추석 제수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육류와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수 가격이 올랐다. 이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한우 채소, 조기 등 16개 주요 제수를 4인 가격을 환산하면 총 9만7000원 가량 든다. 이는 지난해(5만4000원)와 비교해 5.5% 가량 더 비싼 것이다.

이 중 굴비와 참조기(54.7%)와 달걀(52.8%), 도라지(35.2%), 고사리(22.6%), 무(11.2%), 양파(11.3%) 등 채소 가격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올랐다.

특히 나물을 비롯한 채소 가격이 비상이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날 집계한 가락시장 도매가를 보면 시금치(4kg, 4만7760원)와 건고사리(1kg, 3만2500원) 가격은 지난해 보다 각각 36.3%, 12.1% 높다. /김민지기자

선수 성적·영화흥행 따라 춤추는 예금금리

은행 '재미+재테크' 문화 접목 금융상품 출시 봇물

은행업계가 스포츠와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려는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재미'와 '재테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박인비 캘린더그랜드슬램 기원예금Ⅱ'를 판매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선수가 우승할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 12개월 두 종류로 가입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2.6%, 12개월 연 2.7%를 제공한다. 박인비 선수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연0.3%p의 우대이율을 적용 받아 1년제의 경우 최고 연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개봉 예정인 영화 '관상'의 관객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하나 무비 정기예금 관상'을 다음달 13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영화 '관상'의 관객 수가 ▲100만명 미만일 때 연 2.80% ▲100만명 이상일 때 연 2.85%를 지급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이다. 영화 개봉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된다. 이 은행은 지난 5월에도 '하나 드라마 정기예금 구가의서'를 선보였다. 이 정기예금은 드라마 '구가의서' 시청률이 15% 미만이면 연 2.80%, 15%를 넘으면 연 2.85%의 금리를 주는 1년만기 상품이나, 모집 기간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회차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현정기자 mint@metroseoul.co.kr

달콤한 무화과 맛보세요 2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전남 영암에서 수확한 무화과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29일부터 무화과 1팩(9~15입)을 시세보다 15%가량 저렴한 1만3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권 임원 임금 최대 30% 깎인다

하반기 보수 체계 개편

주요 금융사의 임원 급여가 최대 30%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임원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고액연봉 논란과 함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한금융지주는 총보수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10월경 보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장과 행장의 경우 삭감 폭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도 하반기 안에 임원 급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임원들의 고정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이달부터 임원 급여 10~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성과급 20~50% 삭감도 검토 중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올 12월까지 임원들이 월 급여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mint@metroseoul.co.kr

"나 세무서 과장인데" 세금감면 사기 주의보

#사례=최근 기업체에 자신을 세무서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말쑥한 옷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는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더 납부해라"고 독촉했다. 기업체 담당자가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최근 세수 부족이 사회 문제화 되자 세무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세 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달라"며 "국세공무원 사칭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 과장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거나 자신을 퇴직 국세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세무사례집 구매를 강요하거나 식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 부족을 거론하는 사례는 올들어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점을 악용한 것이어서 국세청도 주시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전세 보증금 평균 1억원

주택금융공사 5000명 조사

가구 절반 전·월세 거주

국내 가구의 절반은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 세입자의 10명 중 4명은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6%였으며 전세 가구는 25.4%, 월세는 13.2%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83만원으로 2011년 9047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가구주의 평균 월대료는 33만원이며 40만원 이상이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보증금별 비중 추이

평균 7528만원 / 9047만원 / 10183만원

1억원 이상 / 7천만~1억원 미만 / 5천만~7천만원 미만 / 3천만~5천만원 미만 / 1천500만~3천만원 미만

임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은행권에서 대출 받겠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자체 자금 활용'은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8.1%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30.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은 각각 8.8%와 1.4%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수도권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곳 1만51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입주물량은 이달에 비해 1629가구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9월보다는 2693가구 줄어든 규모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은 지난달보다 113가구 줄어 전세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산은·정책금융공 4년만에 재통합

산은 민영화도 중단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회사채 인수·신성장산업 지원·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업무를 통합해 수행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 통합하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업은행 내 독립부서를 두고 맡긴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자산 약 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4년간 추진됐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되며, 그동안 확대해 온 소매금융 업무 역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우선 매각하되 KDB인프라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내 정책금융 역할을 전담하게 됐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추석 양력으로 바꾸기 어때요"

쉬는 날 개선안 세미나 | 여름휴가 대신 연중 휴가 의견

"추석을 양력으로 바꾸자", "여름휴가제도 대신 연중 1년내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게 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쉬는 날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김대현 전 농협경제연구소 박사는 2000년부터 2029년까지 30년간 추석 양력 날자 중 총 22번(30번 중 73%)은 모두 기온상 여름에 해당된다며 추석 명절을 양력 또는 요일 지정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들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46.4%(평균 15.3일 중 7.1일 사용)로 주어진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데다 여름휴가 시기마저 7월 말~8월 초에 집중돼 관광지 혼잡, 도로정체, 바가지요금, 관광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2000년된 올리브나무 열매로 만들었죠" 27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올리브 나무에서 자란 열매로 만든 '올드 파구스 2000' 올리브유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 & 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운수·숙박·부동산 포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운수·숙박·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27일 밝혔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규모가 영세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8개 업종이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소모성자재구매대행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방안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 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illegible]기자

물류산업 집중육성 통해 5년간 7만명 고용 창출

● 물류산업을 키워 5년간 7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강원 강릉, 충북 제천·영동, 경기 이천·광주 등 10곳의 물류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에서 5만8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물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연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illegible]기자

이건희 회장 3주만에 출근

오늘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

건강 위기설이 돌았던 이건희 회장이 27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정상 출근했다.

평소 화요일마다 서초 사옥에서 집무를 보는 이 회장은 이날 평소보다 1시간30분가량 늦은 오전 10시께 출근했다. 이번 출근은 지난 6일 이후 3주일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감기가 폐렴 증상으로 발전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난 23일 퇴원했다.

건강 위독설까지 제기됐던 이 회장은 당분간 대외활동을 삼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퇴원 나흘만에 정상 출근하며 건재함을 증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출근을 기점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이 회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재계 총수들의 모두 발언을 들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회장이 어떤 언급을 할 지 재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달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unique@

'트랜스포머 노트북' 질러볼까

개강 앞둔 대학생 잡기 디자인 강화 제품 눈길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생들의 노트북 준비도 바빠졌다.

공부용 또는 패션 소품으로 쓰이는 노트북은 이제 대학가 필수 아이템이다. 전자 업계는 노트북 최대 고객층인 대학생을 잡기 위해 무게와 디자인을 강화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노트북 '아티브 북9 라이트'는 감각적인 유선형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20대 소비자를 겨냥했다.

13.3인치, 16.9mm 두께와 1.44kg 무게로 대학생이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리하다. 최대 충전 시 6.5 시간을 쓸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사용 가능한 저소음 기능, 스마트폰·PC 연동을 돕는 삼성 스마트 싱크도 특징이다.

LG전자의 '탭북'은 평소에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태블릿PC로 사용하고, 문서 작업이 필요하면 액정 밑 키보드를 나오게 해 노트북으로 쓸 수 있다. 친구들에게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는 기능을 뽐내고 싶거나 태블릿PC와 노트북이 동시에 필요한 대학생에게 적합하다. 탭북의 무게는 1.25kg으로, 두께 19.4mm, 11.6인치다. 최대 6.4시간의 배터리도 지원한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개강을 앞두고 2013년형 넥서스7을 28일 출시한다. 무게를 기존 제품 340g에서 290g으로, 두께는 10.45mm에서 8.65mm로 대폭 줄이며 휴대성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학기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욱 알찬 개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왼쪽부터 LG전자 '탭북', 구글 '넥서스7', 삼성전자 '아티브'

온라인 유료콘텐츠 '큰손' 자녀있는 30대 직장인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이 온라인 유료 콘텐츠 구입의 큰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센터 김윤화 부연구위원은 27일 '개인의 온·오프라인 유료콘텐츠 지출 성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0대의 온라인 유료 콘텐츠 이용률은 9.1%로 한달 평균 지출비용은 1만8700원이었다. 30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10대의 이용률은 7.4%로 한달 평균 1만2400원을 지출했다.

한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는 음원이며 지출 비용이 큰 콘텐츠는 영화·동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은희기자

기아자동차 K3 쿱 출시

세련되고 날렵 실내공간 '넉넉'

기아자동차가 'K3 쿱'을 27일 출시했다.

K3 쿱은 기아차가 2009년 선보인 포르테 쿱 이후 4년 만에 출시하는 후속 모델이다.

터보 GDI 모델은 1591cc 배기량에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7.0kg.m로 2500cc급의 동력 성능을 구현한다. 공인 복합연비 또한 ℓ당 11.5km로 효율적이다.

1.6 GDI 모델의 경우 ℓ당 12.1km의 연비와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17.0kg.m의 주행성능을 갖췄다. 디자인은 전 모델보다 날렵하고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실내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K3쿱은 동급 최고의 주행성능과 차별화된 쿠페 스타일로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3 쿠페의 가격은 1.6 GDI 엔진 탑재 모델 럭셔리 1790만원, 1.6 터보 GDI 엔진 탑재 모델은 트렌디 2070만원·프레스티지 2200만원·노블레스 2290만원이다.

/양성운기자 unique@

뉴스 & 뉴스

인피니티 Q30 콘셉트 공개

● 인피니티가 'Q30' 콘셉트 실제 모습을 27일 공개했다.

인피니티는 이 모델을 다음달 10일 열리는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Q30 콘셉트는 젊은 고객을 겨냥한 역동적인 디자인과 쿠페의 브리핑 에지, 공간성, 크로스오버의 높은 전고 등 다양한 특징을 고루 갖췄다.

일폰소 알비아사 인피니티 디자인 총괄책임자는 "Q30 콘셉트는 대담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인피니티 디자인 언어의 지속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양유희기자

페이스북 시총 1000억달러 †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약 111조 원)를 넘어섰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따르면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40.3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5% 상승했고, 시가 총액은 1006억 8000만 달러(약 112조1000억 원)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장중 한때 41.94 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5월 기업공개(IPO)를 한 페이스북은 실적 우려 등으로 주가가 1년 넘게 공모가인 38 달러에도 못미치는 등 고전했다. 그러나 올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달 24일 이후 주가가 50% 이상 급등, 공모가 수준을 회복했다. 모바일 광고 호조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에 힘입은 덕분이다. /조선미기자

"왕년엔 한가닥" 잊고 '줌마파워' 어필

취업 포털 커리어가 전하는 경력단절 주부 재취업 5대 전략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되지 않는데 재취업해볼까…"

최근 경제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재취업에 도전하는 가정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부가 일자리를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경력단절 주부들의 재취업 전략을 살펴본다.

◆나만의 강점을 파악하라

재취업의 첫 단추는 나만의 취업 강점을 찾는 일이다. 우선 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업무들을 모두 적어 보며 커리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업무들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적인 경험뿐 아니라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노하우까지 정리하다 보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세워라

무조건 취업을 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지원은 금물이다. 적성이나 관심을 무시하고 취업했다가 도중하차하는 주부들이 적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나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목표가 명확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차별화된 구직서류를 만들어라

근무했던 회사, 기간, 직무 위주의 이력서가 아니라 재취업 강점 위주의 이력서를 써야 한다. 취업 목표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한 뒤 나만의 10가지 재취업 강점들을 기업의 핵심 역량에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고민해 이력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기소개서도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40대 주부라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성실성, 조직 충성심, 인내심, 대인관계 등을 부각시키면 된다.

◆'주부'도 경력

'주부'라는 경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부들은 젊은 층에 비해 친화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데, 이러한 능력은 보험이나 방문판매,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의 직종에 유리하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다루는 분야처럼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일도 추천할 만하다.

◆취업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라

여성부가 지원하는 전국 51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는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정보 외에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취업·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커리어가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카카오페이지에 최근 오픈한 '취업퀸'도 유용하다. 여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을 선별해 제공하는 '맞춤식 공고',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 구직자에게 성공적인 재취업의 노하우를 제시하는 '재취업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공채 트렌드 강의 동영상

대기업의 공채 트렌드를 동영상 강의로 마스터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 전문기업 휴넷 상상마루(sangsang.hunet.co.kr)는 취업 준비생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최신 채용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취업의 기술' 시리즈를 최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공채에 대한 오해', '완벽한 자소서란', '면접관의 심리 꿰뚫기' 등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총 12편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한 강의당 평균 10~15분 정도로 구성돼 이동 중 모바일로 시청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이국명기자

건설로 시작해 10대 그룹 도약

이주의 채용기업 — 동부 동부그룹

동부그룹은 1969년 1월24일 자본금 2500만원과 직원 2명으로 미륭건설(현 동부건설)을 설립하면서 출발했다.

1970년대 초반 중동 건설시장에 선발기업으로 진출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사업다각화를 전략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동부그룹의 기초를 다졌다.

동부는 1990년 20대 그룹으로 진입했으며, 2000년도에는 10대 그룹으로 발전했다.

현재 동부그룹은 철강·금속·화학, 보험·증권·은행 등 7대 사업분야에 진출해 있다. 자산 69조원, 매출 30조 원, 59개 계열사, 60개 사업부문, 임직원 4만여 명을 자랑하고 있다.

동부에서는 7대 사업분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우수한 대졸신입사원을 10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그룹 채용게시판(www.dongbuiro.com)을 참고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주간 채용캘린더

28(수)	한국보람케고보드, 스카이저축은행
29(목)	코원그룹, 우리은행
30(금)	단호제강, ㈜휴맥스, 오뚜기
31(토)	커미트레앤캐스, 중앙녹색개발원
1(일)	홍아해운신협, 현대해상화재보험, 해리슨화재해상보험
2(월)	한샘건설, 제일제당공업
3(화)	다케이치아레산케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대기업 열린채용 확대
2위 학점없게 취업
3위 하반기 공채규모
4위 글로벌취업
5위 고졸공채 예상일정

*21~27일 인기검색 순위

1000년 후 무인행성 단둘이 남은 남녀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바라야 내전' '전사 견습'
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씨앗을 뿌리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후인 30세기.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한 무인행성에서 만나면서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시작된다.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제국주의 사회인 바라야 행성 출신의 군제독 아랄 보르코시건과 이와 정반대로 개방적이고 남녀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인 베타 개척지 출신의 과학자이자 군인인 코델리아 네이스미스다.

코델리아가 이끌었던 부대는 바라야 반란군의 기습을 받은 후 행성을 탈출하지만 낙오된 코델리아는 바라야 함대의 지휘관인 아랄의 포로가 된다. 하지만 아랄 역시 음모에 의해 부대에서 낙오된 상태였고 둘은 살아남기 위해 협력한다.

SF소설 '보르코시건 시리즈'의 '명예의 조각들'은 갈등과 증오로 시작된 두 사람의 운명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동안 사랑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따라간다.

그렇게 부부가 된 아랄과 코델리아. 그리고 그의 아들 마일즈 보르코시건의 이야기가 2번째 시리즈물인 '바라야 내전'이다.

군사 귀족계급으로 태어나지만 태아 때 당한 독가스 테러로 남들보다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져 군인이 되지 못하는 마일즈 보르코시건. 하지만 그는 뛰어난 두뇌와 유머감각으로 장애를 극복해 나간다. 당당히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은 결국 최고의 우주 함대 지휘관이 된다.

30세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장대한 이야기를 담은 SF소설 '보르코시건 시리즈'를 이번 만화로 만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은 시리즈 중 1권 '명예의 조각들'을 27일부터 연재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적에서 연인으로, 다시 부부로… 'SF 만화화' 스릴만점

3권 '전사 견습'에서는 자신만의 우주 용병집단을 지휘하며 항성계 간의 분쟁에 뛰어들게 된 주인공 마일즈의 활약이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작은 키에 볼품없는 얼굴, 약한 체력을 지닌 그는 사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첫사랑에 실패하는 등 현실은 비참하지만 내면에선 무한한 삶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리고 자신의 강한 힘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위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같은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실제로 부졸드의 책을 읽은 암환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하며, 지진으로 전 재산을 잃은 독자는 책을 통해 절망을 극복했으며 우울증 환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했다.

SF 소설이라고 하면 로봇과 기계, 전쟁과 살인이 먼저 떠오르지만 보르코시건 시리즈에는 작가의 섬세함이 그대로 묻어난 드라마와 재치 넘치는 대사가 살아 잠들 틈이다.

특히 치밀한 구성과 등장인물 간의 대화, 심리 묘사는 많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을 만큼 인상적이다. 더욱이 작가는 SF라는 장르적 특성에 장애인과 여성 등 약자의 인권 문제, 정치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 등을 심어 놓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문제를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만든 30세기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SF의 전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시리즈. 그래서 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네뷸러상, 휴고상을 수차례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 보르코시건의 이야기에 빠져보자.

/최재필기자

새로 나온 책

취미

프로에게 배우는 유소년 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커뮤니티/삼호미디어

야구는 배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야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비력을 강화해야 진정으로 강한 팀이 된다는 등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두 팀의 치열한 두뇌싸움에 따라 각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을 취할 지 연계 훈련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운영위원인 김재박 전 LG트윈스 감독이 감수를 맡았다.

여행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 유연태·전계욱 외/길벗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내 무대'라는 말처럼 자동차로 훌쩍 떠나 멋진 절경 속에서 노닐다 올 수 있는 여행 코스를 다채롭게 담았다. 전국 구석구석을 취재해 온 유명 여행작가 9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이브 장소를 소개한다. 주제별로 정리한 36개 여행 코스도 제안했다. 서울의 북악스카이웨이부터 제주의 사계리 해안도로까지 코스별로 이동동선과 거리, 소요시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따라가기만 하면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꾸몄다.

도쿄버스 여행 시라이 미와 外/사람사는세상

"버스에 몸을 실으면 거리의 표정이 창을 통해 전해온다." 덜컹덜컹 버스 노선을 따라 진짜 도쿄의 매력을 즐기려는 자유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10개 노선을 정해 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는 색다른 관광지와 맛집, 그리고 현지인들의 삶이 묻어있는 뒷골목의 매력을 소개한다.

화려한 번화가의 큰 길을 달리다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언덕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버스 여행의 재미가 쏠쏠하게 묻어난다.

하루키 밀어낸 조정래…'정글만리' 첫 1위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 '정글만리'가 6월 출판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했다. 최근 7주 연속 정상을 달린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출판인회의가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8곳에서 판매한 부수를 종합한 8월 넷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정글만리1'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2위로 밀어내고 출간 후 첫 1위를 차지했다.

'정글만리'의 2권(5위)과 3권(7위)도 10위권 안에 든 데다 순위도 계속 오르고 있다.

8월 넷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 정글만리1(조정래·해냄)
2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무라카미 하루키·민음사)
3 꾸뻬 씨의 행복 여행(프랑수아 를로르·오래된미래)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쌤앤파커스)
5 정글만리2(조정래·해냄)
6 28(정유정·은행나무)
7 정글만리3(조정래·해냄)
8 인페르노1(댄 브라운·문학수첩)
9 공부하는 힘(황농문·위즈덤하우스)
10 관점을 디자인하라(박용후·프롬북스)

이번 여름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소설은 10위권에 7권이나 올라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legible]기자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이 매콤한 고추 향 속에 물씬했다. 이날 시작된 '2013 영양고추 H·O·T Festival'을 찾은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에 몰려들었다(사진 왼쪽). 축제에 참여한 권영택 영양군수가 직접 김치를 담그고(가운데), 개그맨 장진수씨가 직접 키운 고추를 판매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손진영기자 son@

알싸~한 영양 햇고추 '서울 나들이'

내일까지 서울광장서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산지 가격에 판매

'고추의 고장' 경북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싱싱한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터를 서울시청 광장에 열었다.

토종 고추 복원으로 영양고추의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양군은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2013 영양고추 H O T Festival'을 시작해 29일까지 이어간다.

올해 7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비타민의 보고, 건강한 영양고추'란 주제로 지역내 45개 농가와 단체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는 물론 청정영양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빛깔진 김치 강좌 및 체험, 영양고추 테마음식, 야생화 비누만들기와 목공예 체험 등 행사장 방문객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행사 첫째날인 27일에는 ▲영양 문화예술 한마당 ▲영양고추비로 읽기 ▲개막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둘째날(28일)에는 ▲세대공감 한마당(한겨레예술단 공연) ▲가람 객 참여 레크리에이션 (큰고추찾기, 영양고추 빨리먹기 등) ▲세대공감 한마당(실버밴드 공연) ▲영양고추 아가씨 공연(난타공연) 등이 열린다. 마지막날(29일)에는 ▲고추빨리먹기·고추썰기 ▲키즈댄스 공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빛깔찬 영양고춧가루'로 담근 김장김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에는 사흘간 약 16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특산품 매출액은 45억여원에 달했고 300억원 이상의 영양군 홍보효과로 이어져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 증가 효과를 냈다.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 7번째 서울나들이를 하는 영양고추는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과 더 나아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더 좋은 품질의 영양고추로 거듭나고 있다"며 "올해는 고추 품작이 예상됨에 따라 고추재배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예년보다 농산물 판매 부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스 참가자 대부분이 직접 고추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로 구성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양군이 주최하고 한국농업인 영양군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경상북도·한국농수산유통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식품연구원·영양고추유통공사·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영양농협·남영양농협이 후원한다.

/정의훈기자 yse@metroseoul.co.kr

"직접 재배한 농민들이 팝니다"

권영택 영양군수 인터뷰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난 권영택 영양군수는 "서울 한복판에서 7회째 개최되는 영양군의 농산물 축제가 매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품질이 뛰어난 영양의 농산물을 산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후끈하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신감은 품질에 대한 자신에서 나왔다. 권 군수는 "낮과 밤 일교차가 큰 지형적 영향 덕분에 고추 품질이 좋다"며 "농업인들이 고추 재배 전통방식과 새롭게 향상된 기술을 접목시켜 품질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영양고추는 다른 지역 고추에 비해 비타민A·C와 캡사이신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영양군의 빛깔찬 고춧가루는 신맛 성분이 적은 대신 유리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군수는 "부스 참가자 대부분이 직접 고추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영양군은 '영양 산나물 축제'로도 유명하다. 올해로 9회째 '영양 산나물 축제'를 개최한 영양에는 참나물·사리·곰취·개미취·단풍취 등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다.

/정의훈기자

로레알파리 모델 팔빈 명동서 한정세트 소개

로레알파리의 뮤즈 겸 모델 바바라 팔빈이 27일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라이프스타일 체험센터를 방문해 팬사인회와 함께 자신의 뷰티 팁을 팬들에게 전하는 뷰티 토크에 참여해 한국팬들을 만났다.

이날 현장에서 바바라 팔빈은 자신의 이름을 딴 한정 세트 '바바라 시크릿박스'를 선보였다.

실제로 그가 즐겨 쓰고 있는 로레알파리의 수분크림과 틴트 제품으로 구성한 바바라 시크릿 박스는 9월 5일부터 올리브영 전점에서 판매될 한정판매될 예정이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카페 1500곳 점령한 '메트로 웨딩특별판'

지난 12일 발행된 메트로신문 '웨딩특별판'의 인기가 거세다. 12~19일까지 10만부를 배포한 데 이어 탐앤탐스·카페베네 등 카페 1500곳에 비치돼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메트로웨딩은 메트로신문사와 다우나이가 협력해 만들며 10월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된다. 메트로웨딩은 웨딩홀 정보는 물론 혼수·드레스·메이크업 등 기본 정보와 신혼부부 살속 재테크, 집테리어 등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크로넛 크루아상+도넛>

'뉴요커의 도넛' 반하겠네

던킨 '뉴욕파이도넛' 전국 8개 매장 한정판매…바삭함·부드러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미국 뉴욕에서 도넛의 유행을 바꿔 버린 '크로넛'이 최근 국내 상륙했다.

크로넛은 프랑스 요리사 도미니크 앙셀이 크루아상과 도넛의 장점을 모아 개발한 것으로 뉴욕 맨해튼 소호거리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유럽, 일본에까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로넛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최신 뉴욕 스타일을 재빨리 접목한 곳은 던킨도너츠다. 던킨도너츠는 뉴욕의 크로넛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진화시킨 '뉴욕파이도넛'을 새롭게 출시했다.

크로넛의 느끼함은 줄이고 바삭함과 쫄깃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쓴 것이 특징이다. 도넛 속에 16겹의 페스트리 도우를 층층이 쌓아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해 독특한 식감을 맛볼 수 있다. 달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크로넛을 더욱 맛있게 즐기려면 바디감과 향이 뛰어난 던킨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곁들이라고 회사 측은 조언했다.

던킨도너츠에서는 제품 다양화를 목표로 올해 2월부터 페스트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도넛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던킨도너츠 관계자는 "뉴욕 시장조사를 통해 크로넛의 인기와 제품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거쳐 선보인 새 제품은 출시 이후 보름 만에 1만 개 판매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파이도넛은 제조 후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제삼의 맛을 느낄 수 있어 하루 2~3회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신선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선 던킨도너츠 강남본점, 국기원점, 명동본점, 잠실본점 등 4개 매장에서 맛볼 수 있다. 또 울산 삼산점, 대전월평점, 부산 서면대로점, 청주터미널점 등 지방 4개점을 포함, 전국 8개 매장에서 하루 1000개를 한정판매하고 있으며 매장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2000원.

/전효순기자

가뿐하게 입고 '힐링 산행'

노스페이스 가을겨울 신제품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27일 올 가을·겨울 신제품으로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된 '다이나믹하이킹 컬렉션' 제품을 내놨다.

기존의 무거운 등산화 대신 가볍고 역동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설계된 초경량 등산화 'DY S ID'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다이나믹 재킷·팬츠·스커트·레깅스·배낭 등으로 구성됐다.

노스페이스는 또한 가볍고 빠르게 산행을 즐기는 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다이나믹하이킹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제안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다이나믹하이킹 라이프 스타일은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하이킹에 힐링을 접목한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산에서 빠르게 힐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최적의 아이템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유리돔 수영장서 가을맞이

르네상스 서울 주말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가을 주말 패키지'를 9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에 선보인다.

총 3가지 가을 패키지는 기본 공통혜택으로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및 사우나 50% 할인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층을 배려한 혜택을 제공한다.

디럭스룸 1박과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한 '가을 세이빙 패키지'는 18만5000원(이하 세금 및 봉사료 별도). 디럭스룸 1박,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 트레비 라운지 가을 칵테일 2잔, 객실 내 무료 영화 한 편과 무료 인터넷, 르네상스 에코 텀블러 1개를 제공하는 '가을 조이 패키지'는 23만5000원이다. 가족고객을 위해 성인 1명당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1인 식사가 무료(최대 2인)인 혜택을 담은 '가을 패밀리 패키지'는 24만5000원부터다. 문의: (02)2222-8500

19년간 130만명 추적한 건보공단 "흡연자 암 확률 2~7배↑ 진료비 연 1조7000억"

수조원대 '담배 소송' 시작되나

소송규모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소송'이 시작될까.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파장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 130만 명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이 각종 암의 위험을 3~7배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해 소송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담배소송은 모두 흡연피해자들과 가족 등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한 건씩 계류 중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진료기록을 갖고 있는 데다 탄탄한 법률적인 전문성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을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1조6914억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소송가액은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승패가 갈릴 예정이다.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통념을 따지거나 소비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을 추궁할 수 있더라도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가 25년간 주정부에 약 230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올해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가 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KT&G는 27일 "담배 회사에는 위법 행위가 없다"며 "건보공단이 소송을 걸면 기존의 흡연 소송처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hyojeon@metroseoul.co.kr

英 왕실만 먹었다는 그 분유

저지카우 프리미엄 분유 아이배냇 '온리 12' 출시

젖소의 품종까지 따져 분유를 고르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최근 분유 업계 최초로 저지(Jersey) 품종의 젖소 원유로 만든 프리미엄 분유가 출시되면서다.

얼핏 한우처럼 보이는 저지 카우는 영국 왕실 전용 우유를 만들기 위해 개량한 품종으로 유명하다.

일반 우유에 비해 풍미가 진하며 원유 색깔이 황금빛을 띠고 있어 골든 밀크라고도 불린다. 단백질, 유지방, 칼슘, 인, 비타민 등이 더 많이 함유돼 있고 모유·산양유에 풍부한 A2 β-카제인도 있어 소화흡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배냇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저지 품종의 프리미엄 우유로 만든 분유 'Only 12'를 선보이고 있다.

'송혜교의 아이시스' 전파

생수브랜드 '아이시스 8.0'이 톱스타 송혜교를 모델로 발탁한 TV CF를 선보여 화제다. 아이시스 8.0은 약알칼리수의 상징인 pH 8.0을 띠는 물이다. 이번 광고에서는 다른 생수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아이시스8.0만의 핑크빛 패키지를 전감한 물을 고를 수 있는 상징으로 활용했다.

"섹시+성숙…내 연애담 노래에 담았죠"

두번째 솔로앨범 낸 빅뱅 막내 **승리**

작사·작곡·프로듀서로 앨범 참여
나는 유쾌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
우리 그룹 음식에 비유하면 초밥

빅뱅의 막내 승리(23)가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주 두 번째 솔로 미니 앨범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를 발매하면서 섹시한 남자로 변신했다. 또 데뷔 7년 만에 프로듀서까지 도전했다. 20일 홍익대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어쿠스틱 선율 녹여… '지지베' 애착

새 앨범에는 서정적인 어쿠스틱 기타 선율에 특유의 미성이 어우러진 타이틀곡 '할말 있어요'를 비롯해 '지지베', '그 딴 거 없어' 등 다양한 장르의 7곡이 수록됐다. 프로듀서는 물론 전곡의 작사·작곡 곡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사랑에 대한 경험담과 주변에서 본 일들을 노래로 만들었다.

"처음으로 프로듀서를 맡아 진행해 어려웠어요. 7년간의 빅뱅 경험으로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해봤는데, 역시 프로듀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란 걸 느꼈어요. 그래도 음악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영상, 사진까지 앨범 전체를 총괄하며 많은 것을 배웠죠."

노래를 표현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룹으로 활동할 때와 달리 혼자서 한곡을 온전히 소화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앨범과 같은 제목의 1번 트랙에는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이 피처링으로 지원사격도 했다.

모든 곡이 자식처럼 소중하지만 '지지베'에 더욱 애착이 간다. 칭찬에 유독 인색하기로 유명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처음 이 곡을 듣고 나서 "나쁘지 않다"며 좋은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 가슴 아픈 본인의 경험담이기도 했다.

"1년 전 겪은 일이에요. 여자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식어가는 남자의 마음을 담았죠. 보통 남녀가 이별할 때 나쁜 사람으로 비치기 싫어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잖아요. 너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먼저 나오길 바라며 그런 행동을 했던 상대가 야속했죠."

이번 앨범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묻자 50점이라고 자평했다.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발전 가능성을 봐달라는 얘기였다. "아직 어리지만 4~5년 뒤를 기대해 달라"면서 "볼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남자적 매력 어필하고 싶어

외적으로도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무대에서 막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단정한 모노톤 수트를 차려입어 남성미를 뽐냈고, 앨범 발매에 앞서 파격적인 19금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남자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빅뱅의 막내의 예능 이미지 탓에 노래까지 가벼워 보일까봐 나를 누르고 성숙미를 강조하려고 했죠. 특히 영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붉은색의 색감이 자극적으로 보일 뿐 영상 자체는 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상시 그는 여전히 활발한 소년이다. "빅뱅 내에서 유일하게 유쾌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다. 다들 낯가림이 있는데 나만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긴다"고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이같은 장점을 살려 일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3개나 진행하며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도 발휘 중이다. 수준급의 일본어 실력 덕에 가능했다. 승리를 보고 빅뱅을 좋아하게 된 일본팬들도 많아졌다. 일본에만 가면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정도다.

빅뱅 활동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의 한 멤버로서 기분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빅뱅은 음식에 비유하면 초밥 같아요. 다양한 맛이 있고, 분위에 따라 또는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니까요. 늘 그룹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멤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말에는 오랜만에 한국에서 빅뱅으로 뭉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그 전에 지드래곤과 태양이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 승리는 "각자 활동을 마치고 빅뱅으로 돌아가면 솔로 다섯명이 합쳐있는 느낌이 들 것이다.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김아람

아시아는 지금 '엑소 앓이' 중

새내기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 열풍이 아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고 있다.

엑소 정규 1집 XOXO(키스&허그) 리패키지 앨범 한국어 버전은 대만 음반 매장 파이브 뮤직의 한일 차트에서 3주 연속(8월 2~22일) 1위를 지켜냈고, 중국어 버전은 중국어 차트 2주 연속(8월 2~15일) 1위에 올랐다.

이번 앨범은 태국의 대표적인 음반 매장 B2S의 B2S 톱20 차트 세계 음악 부문에서도 단숨에 1위(8월 12~18일)로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확인했다.

엑소는 타이틀곡 '으르렁'으로 KBS2 '뮤직뱅크'와 SBS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를 비롯해 MBC '쇼! 음악중심', 엠넷 '엠카운트다운', 'MBC뮤직 쇼! 챔피언'까지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했다.

이번 앨범은 국내 음반판매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에서 3주 연속 1위(8월 5일~25일)를 달리며 여름 음악시장에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발표한 정규 1집 오리지널 버전은 출시 한 달 만에 40만 장이 팔렸다.

▶SM 탁월한 지원, 모험 성공

데뷔 2년째 신인이 이례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경을 두고 가요계 안팎에서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막강한 지원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수 관계자들 사이에선 SM으로서도 모험을 건 새로운 시도가 적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엑소는 SM 내부에서도 가창·안무·외모가 가장 완벽한 연습생들만을 모은 역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각각 6명의 한국 팀 엑소K와 중국 팀 엑소M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앨범을 출시하고 활동하는 블록버스터 전략이 대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엑소는 최근의 글로벌 K-팝 열풍에 맞춤형 아이돌 그룹이다.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듯하다. 이들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동방신기+슈퍼주니어 장점 합친 아이돌그룹"
가창력·외모·안무 완벽 한·중 등 1위 질주

"강예빈과 열애라뇨? 짜증"

권상우가 강예빈과 사귄다는 소문에 분노했다.

권상우는 26일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짜증이 나서 글 올린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또 괴롭힌다"며 "나야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가족은 무슨 죄냐"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키니 입고 19금 퍼포먼스

미국 아역 배우 출신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가 파격적인 19금 무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러스는 25일(현지시간)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남자가수 로빈 시크와 함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소극장 공연 11년만에 개최

김범수가 11년만에 소극장 공연을 개최한다.

27일 소속사에 따르면 김범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K)-아트홀에서 '포 레스트 캠프' 콘서트를 마련한다. 400여 관객과 함께 할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들을 어쿠스틱으로 편곡해 들려줄 계획이다.

새 주말극 '열애' 여주인공

최윤영이 SBS 새주말극 '열애'의 여주인공으로 나선다.

최윤영은 28일부터 방송될 이 드라마에 재벌 3세 강무열(성훈)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한유정으로 출연한다. '기적사진'의 배태섭 PD와 '당돌한 여자'의 박예경 작가가 연출과 극본을 각각 맡는다.

R&B스타 베넷 손잡고 싱글

6인조 걸그룹 **피에스타**가 세계적인 R&B 스타 에릭 베넷과 손잡고 새 싱글을 선보였다.

이들이 27일 멜론과 엠넷닷컴 등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 통해 공개한 '후(Whoo)'는 작사가 김이나가 노랫말을 맡고, 베넷이 작곡한 노래다.

피에스타의 멤버 재이는 팀 공식 트위터에 신곡 발매 소식과 더불어 베넷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손승연도 미국 유학길

전 학기 반액 장학금 받고 버클리음대 입학

로이킴에 이어 또 한 명의 오디션 우승자인 손승연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지난해 방송된 엠넷 '보이스 코리아 시즌1' 우승자인 손승연은 2011년 12월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아놓은 버클리 음대 입학을 위해 30일 출국한다.

소속사 포츈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함께 호원대와 버클리 음대에 지원했고, 두 곳에 모두 합격했다"며 "전 학기 반액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성적으로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이스 코리아'에서 네 차례 심사위원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빼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손승연은 고교시절 전교 2등,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수상 등의 이력을 지닌 '엄친딸'로 화제를 모았다.

손승연은 "오랜 고민 끝에 입학을 결정했다. 큰 꿈을 위해 유학을 결정한 만큼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 생활과 음악 공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보이스 코리아' 우승상금(3억원)을 유학자금으로 쓰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케이블 엠넷 '슈퍼스타K 4' 우승을 차지한 로이킴은 지난해 합격 통보를 받은 미국 조지타운대에 입학하기 위해 최근 출국했다. /윤순호기자

휘성 '배치기 콘서트' 뜬다

제대후 첫 복귀무대 게스트 출연하기로

가수 휘성이 제대후 첫 복귀 무대로 후배들의 공연을 골랐다.

이달 6일 군복을 벗은 휘성은 31일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2013 배치기쇼 전국 제패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남성 힙합듀오 배치기(작은 사진)가 이 공연의 주인공으로, 휘성은 '안되나요' 등 히트곡들을 들려줄 계획이다.

에일리도 힘을 보탠다. 배치기의 히트곡 '눈물샤워'를 피처링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서다.

휘성, 에일리와 YMC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배치기는 "휘성 선배님과 무대위에서 주고받을 음악적 교감에 벌써부터 설렌다"며 "먼 곳까지 함께 해 주실 휘성 선배님과 에일리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까까머리 쑥쓰럽네요"

송중기 입대 ·· 아시아 200여 팬 배웅받아

송중기가 27일 입대하기에 앞서 모자를 벗으며 쑥쓰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

인기 절정의 송중기가 200여 아시아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27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에 입소했다. 앞으로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소에 앞서 12시35분께 밀리터리 스타일 모자에 청바지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나 배웅을 나온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모자를 벗은 후 삭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쑥스러운 지 머리를 연신 매만지던 송중기는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면서 "최근 (연예 사병 관련) 얘기들도 많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잘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훈련소로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서 온 20~30대 여성 팬들은 '기다릴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입대를 아쉬워했다. 일부 팬들은 송중기를 보다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이 곳을 찾기도 했다.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송중기는 KBS2 '성균관 스캔들', SBS '뿌리 깊은 나무'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영화 '늑대 소년'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흥행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박진환기자 jsk0427@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4화 글 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연인 같은 서인국·정은지 tvN '응답하라 1997'의 커플 서인국과 정은지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193개국 IT 축제인 2014 ITU 전권회의 홍보대사인 이들은 최근 서울 약수동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홍보 사진을 찍었다. 현장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를 즐기는 모습과 전국민을 2014 ITU 전권회의에 초대하는 콘셉트를 세련되게 표현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 진정한 능력자네요. 어리지, 잘생겼지, 널리 자랑할 만합니다

최지우 폭염에 웬 파카?

'수상한 가정부' 첫 촬영

최지우가 한류 공주에서 수상한 가정부로 변신했다.

다음달 23일부터 방송될 SBS 새 월화극 '수상한 가정부'에 주인공 박복녀로 출연하는 그는 얼마 전 서울 근교 놀이공원에서의 첫 촬영에서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극중 박복녀가 놀이시설을 지나 햄버거 가게 테이블에 앉아 3인분을 주문하는 장면으로, 땡볕 공원 이용객들은 두꺼운 파카와 깊숙이 눌러쓴 모자 차림의 최지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날 촬영에서 최지우는 기존의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박복녀에게 빙의된 듯 차갑고 무표정한 연기를 펼쳤다. 특히 박복녀에게 딱 들어맞는 걸음걸이를 표현하기 위해 상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긴 다리로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모습으로 캐릭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촬영 후 "박복녀는 알 수 없는 비밀과 숨겨진 매력을 함께 지닌 인물"이라며 "새로운 변신으로 캐릭터를 충실히 표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빠와 4남매가 함께 사는 가정에 비밀투성이 가사 도우미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릴 이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 '가정부 미타'가 원작이다. 2011년 현지 방송 당시 최고 시청률 40%를 기록, 일본 역대 드라마 순위 3위에 오르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박진환기자

잡스 환생한듯 '담백 화법'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잡스

누구나 알고 있는 그것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인사의 일생을 스크린에서 되살려 내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그 대상이 혁신의 아이콘 혹은 괴팍한 성격의 IT 독재자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29일 개봉될 '잡스'는 잡스 전기를 읽기 전 한번 훑어볼 입문서 정도로 여기면 감상후 뒷맛이 훨씬 개운할 만한 작품이다.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꼼꼼하고 자세히 되돌아보는 맛은 다소 부족하지만, 잡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캐주얼한 화법이 꽤 담백하고 근사하다.

줄거리는 잡스의 20대부터 40대까지에 초점을 맞춘다.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터틀넥과 리바이스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 차림의 잡스(애시턴 커처)가 아이팟을 처음 공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청년기로 돌아간 뒤, 자신을 쫓아냈던 애플로 복귀할 때까지를 그린다.

극중에서 다루는 시기가 이렇다 보니 아이폰 개발 등과 관련된 말년의 이야기는 당연히 소개되지 않는다. 또 애플 컴퓨터의 실질적인 개발자인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필생의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주인공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도 아주 평면적으로 묘사되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 개봉후 현지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한데,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 취사 선택한 소재의 일부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이같은 몇몇 단점을 가리는 것은 애시턴 커처의 열연이다. 번듯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무개념 코미디' 전문으로 출발해 데미 무어의 조카뻘 전 남편으로만 익숙했던 커처가 잡스의 청·중년기 외모는 물론 특유의 걸음걸이와 쏘아보는 눈빛까지 완벽하게 재연하는 모습은 마치 잡스가 환생한 듯한 느낌을 준다. 12세 이상 관람가.

카셀·벨루치 '이젠 남남'

결혼 14년만에 이혼

유럽 영화계를 대표하는 선남선녀 커플 뱅상 카셀-모니카 벨루치 부부가 결혼 14년만에 갈라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카셀의 대변인은 "이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벨루치 측도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결별 사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두 딸을 누가 양육할 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1996년작 '라빠르망'으로 처음 만난 카셀과 벨루치는 1999년 결혼한 뒤 2002년작 '돌이킬 수 없는'에서 과감한 알몸 열연을 합작해 화제를 모았다.

프랑스 출신인 카셀은 마티유 카소비츠 감독의 1995년작 '증오'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오션스' 시리즈 2·3편과 '블랙스완' 등으로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중인 실력파 연기자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모델로 출발한 벨루치는 '매트릭스'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조성준기자

빈 디젤 명예의 전당 입성

할리우드 '민머리 액션스타' 빈 디젤이 '명예의 전당'에 2504번째로 이름을 올렸다고 DPA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디젤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리딕' 시리즈로 잘 알려졌으며,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을 홍보하러 1년여 전인 5월 내한했었다.

K-팝·드라마 버무린 신개념 한류공연

이랜드그룹 이병헌·씨스타 등 앞세워 사업 진출

이랜드그룹이 월드스타 이병헌과 K-팝 스타들을 내세워 한류 공연 사업에 진출한다.

이랜드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박성경 부회장과 이병헌, 여성그룹 애프터스쿨 포미닛, 씨스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개념의 한류 공연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와팝(WAPOP)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공연은 드라마와 K-팝 등 여러 한류 인기 컨텐츠를 엮었다. 10월 1일부터 1800석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내 돔아트홀에서 상설로 진행될 첫 공연은 이병헌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추억의 사랑 대마 여정 이란 주제로 열린다.

무대는 꽃보다 남자, '천국의 계단', '해를 품은 달', '겨울연가', '아이리스' 등 한류 드라마 명장면과 가수들의 K-팝 라이브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병헌이 내레이션을 맡아 입체적인 영상으로 등장해 공연을 소개하고 4~5팀의 가수들이 출연한다. 총 40여곳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참여를 결정했다.

박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1100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한류를 느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면서 "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동반성장 등 사회 기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헌은 "한류 콘텐츠를 아시아 시장에 알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광이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랜드는 와팝을 세계적인 한류 랜드마크 상품으로 만들고, 다양한 한류 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2015년까지 신규 해외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27일 이랜드그룹의 한류문화 공연사업 진출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여의도호텔에서 이병헌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포토타임을 갖는 씨스타 /뉴시스

wind4686@naver.com

임태경 첫 단독투어 콘서트

데뷔 11년만에 … 한·미·일 순회무대

뮤지컬 배우 겸 크로스오버 테너인 임태경이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투어 콘서트를 펼친다.

다음달 21일부터 LG아트센터에서 열릴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주요 도시와 한국 5개 도시를 돈다. 또 12월 일본에서 단독 앨범 발매와 동시에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 뮤지컬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및 KBS2 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2 에서 보여준 디케로운 모습과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변신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임태경은 소속사를 통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단독 투어 콘서트인 만큼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무대까지 직접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같은 소속사의 옥주현, 김승대, 정동석과 함께 일본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던 그는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해외에서의 활동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문의: (02)549-5520

/박진현기자

'움직이는 예술버스' 방방곡곡 출발!

예술버스가 전국을 방방곡곡 누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무료 예술교육 프로젝트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전국 40여 곳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연극과 그림자극, 가면 만들기, 블록 놀이, 그림 감상하기 등이 마련된다.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은 추억 만들기와 소고 배우기, 뒷뜰이 한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 강사들과 전문 교육강사들이 진행한다. 신청은 전화(02-747-3880)나 온라인(artebus.arte.or.kr)으로 하면 된다.

/박진현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color is your purse? 사물 묘사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Look at that table

B Hmm 난 저 테이블의 모양이 마음에 들어.

A I like it too.

B Well 이 테이블은 저것보다 더 길어.

A Yes, it is. Wow, I like the table cloth

B 이 소재는 촉감이 부드러워.

정답 I like the shape of that table / this table is longer than that one / This material feels sof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It's within a stone's throw.

(그것은)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어요.

공간적인 거리를 묘사하는 표현 하나 배워볼까요? 작정하면 돌을 던져서 가는 거리 안쪽 떨어져 있다는 뜻의 It's within a stone's throw 는 우리말로 말할 때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within은 어느 한정된 거리나 시간 내에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 때는 You can walk there 라고 표현합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1)

▶ 셀 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는 수량어

a little 약간의	any 하나도(부정문, 의문문)
little 거의 없는	much 많은(항상 부정문)
some 약간의	a lot of[lots of] 많은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glass
유리잔 안에 물이 약간 있어요.

2 Abby took out some money 애비는 돈을 좀 찾았어요.

3 John doesn't drink much water
존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Newton Library is open ______ all community residents
(A) to (B) on
(C) from (D) at

02 For a full refund, please ______ the product in its original packaging
(A) returns (B) returned
(C) return (D) returning

01 뉴턴 도서관은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해설 대상~에게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to를 쓴다
어휘 community 지역 사회, 공동체 resident 주민
정답 (A) to

02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원래 포장에 넣어 반송하세요.
해설 please 뒤에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으로 동사 자리다. 빈칸에는 동사원형, return을 쓴다
어휘 full refund 전액 환불 original 원래의 packaging 포장
정답 (C) return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1 Read a text aloud

과거 시제 및 수동태의 -d, -ed 발음

1) 단어의 끝이 무성음으로 끝날 때
동사의 과거 및 과거 분사 형태를 나타내는 -d, -ed는 [s], [f], [k], [p], [tʃ] 등의 무성음 뒤에서 [t]로 발음된다. 단 t로 끝나는 단어에서 -ed는 [id]로 발음된다

2) 단어의 끝이 유성음으로 끝날 때
동사가 유성음으로 끝날 때에는 -d, -ed가 [d]로 발음된다. 유성음에는 [z], [l], [v], [g] 등과 모든 모음이 포함된다. 단 d로 끝나는 단어에서는 -ed가 [id]로 발음된다

3) 단어의 끝이 -t나 -d로 끝날 때
동사의 끝이 t나 d로 끝날 때에는 위 1), 2)의 발음 규칙을 따르지 않고 -ed가 [id]로 발음된다

[t]		[d]		[id]	
stopped	finished	tried	failed	deleted	voted
parked	danced	remembered	closed	rusted	completed
laughed	matched	arrived	changed	decided	sounded

처음 '손' 잡은 홍명보

손흥민 첫 발탁… "기성용·박주영 이적문제 해결되면 부를것"

3기 '홍명보호'의 승선자 명단이 발표됐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손흥민(레버쿠젠) 등 유럽파 대부분이 예상대로 발탁됐지만, 이적설이 현실인 기성용(스완지시티)과 박주영(아스널)은 제외됐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은 2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6일 아이티와 10일 크로아티아 평가전에 나설 25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파는 모두 7명으로 분데스리가의 손흥민, 구자철(볼프스부르크), 박주호(마인츠)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지동원(선덜랜드)과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윤석영(퀸즈파크 레인저스) 등이 포함됐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굳은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K리그 소속으론 홍정호(제주)와 이용(울산) 등 12명이, 일본 J리그에선 황석호(히로시마)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등 4명이 각각 뽑혔다. 이밖에 김영권(광저우)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유일하게 선발됐다.

이번 승선자 명단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삼아 지동원 원톱 스트라이커에 지동원을, 섀도 스트라이커에 구자철을 각각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과 김보경이 왼쪽 날개를 두고 경쟁하며, 오른쪽 날개는 이청용이 맡을 전망이다.

홍 감독은 "대표팀의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며 "유럽파라고 해서 대접해주는 일은 없다. 팀내 단합과 분열 방지를 위해 유럽파 같은 단어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성용과 박주영을 발탁하지 않은 이유에 관련해선 "기량은 이미 검증됐다"면서도 "이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whsn@metroseoul.co.kr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홍명보호에 처음 발탁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AC밀란 원정경기 박지성 "자신있다"

내일 챔프리그 PO 2차전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에인트호번의 박지성(32)이 AC밀란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박지성은 27일 네덜란드 일간지 알게민 다그블라드와 인터뷰에서 "산시로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다. 에인트호번 시절은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도 뛰었다"며 "그곳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다. 그 때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입고 2004~2005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AC밀란과 맞붙어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어 승리를 견인했다.

또 2009~2010 시즌 맨유 소속으로 산시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나서 결승골을 소화하며 3-2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에인트호번은 2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경기장에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다.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에인트호번은 2차전에서 승리하거나 2골 이상을 넣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루니 살아있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왼쪽)가 2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존 테리와 격렬하게 볼을 다투고 있다. 루니는 0-0으로 비긴 이 경기에서 몸싸움을 위며 자신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첼시 조제 무리뉴 감독의 마음을 시로잡았다. /로이터 연합뉴스

추신수 무안타 2삼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2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 선발 출장했으나, 삼진 2개를 포함해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시즌 타율은 0.278에서 0.276으로 떨어졌고, 팀은 6-5로 역전패했다.

넥센, LG에 짜릿한 1점차 승리

삼성, NC꺾고 선두 유지…SK 98일 만에 승률 5할 복귀

'엘넥라시코'라 불리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맞대결에서 넥센이 효수비에 힘입어 1-0으로 승리를 챙겼다. 삼성 라이온즈도 막내구단 NC 다이노스의 패기를 힘겹게 뿌리치고 선두를 유지했다.

넥센은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선발 브랜든 나이트와 계투진의 호투 속에 1회 뽑은 1점을 잘 지켜 1-0으로 이겼다. 54승 2무 46패를 올린 4위 넥센은 이날 경기가 없던 3위 두산에 0.5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삼성은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1-1로 맞선 9회 터진 김상수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NC에 2-1로 역전승했다. LG에 이어 두 번째로 60승(2무 39패) 고지를 밟은 삼성은 승률과 승차에서 모두 LG보다 앞서 1위를 지켰다.

SK 와이번스는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를 3-0으로 물리쳤다. 48승 2무 48패를 기록한 6위 SK는 5월 21일 이후 98일 만에 승률 5할에 복귀하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가능성을 이어갔다. 롯데는 9회 터진 박준서의 결승 투런포를 발판삼아 KIA 타이거즈를 7-2로 격파했다. /[illegible]기자

프로야구 전적 27일

■ 잠실

넥센	100	000	000	1
LG	000	000	000	0

■ 문학

한화	000	000	000	0
SK	001	001	10X	3

■ 광주

롯데	010	000	105	7
KIA	000	100	100	2

■ 대구

NC	000	100	000	1
삼성	000	010	001	2